



[산업] 얼굴로 후 제어 '페이스 커넥트' GV60 첫 적용 06



Life

[라이프] 5년만에 1억잔 스타벅스 콜드브루 국민커피 등극 L2



추석 연휴 3226만명 대이동... 21일 오후 2시 가장 막힌다

지난해 추석보다 이동량 3.5%↑ 추석 당일 626만명 이동... 정체 극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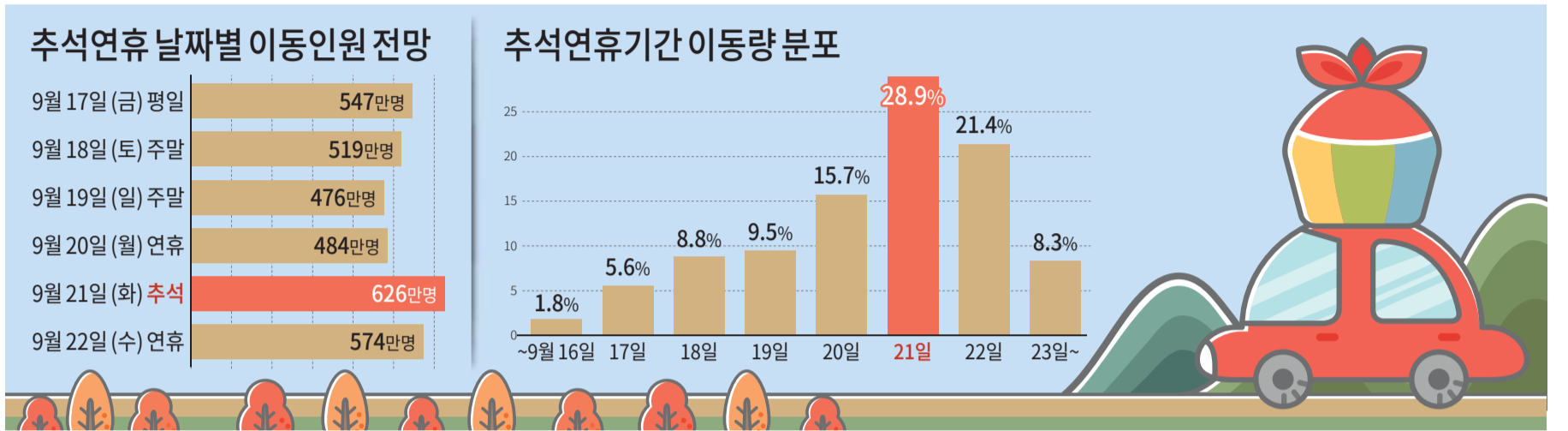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교통시설 최상위 수준 방역태세

올 추석 연휴 이동 인구는 추석 당일인 21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20일 오전 8~10시, 귀경길은 21일과 22일 오후 2~3시에 고속도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귀성·귀경길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600만명, 522만대 이동 전망

국도교통부는 16일 추석 연휴 교통 수요 전망을 위해 1만39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휴 기간 동안 총 3226만명, 하루 평균 5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3.5% 늘어난 수치다.

날짜별 이동량은 추석 당일이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이동량 분포를 보면 오는 18일 519만명, 19일 476만명, 20일



484만명, 추석 당일 21일 626만명, 22일 574만명 등이다.

고속도로 예상교통량은 17일이 541만대로 가장 많았고, 18일 477만대, 19일 415만대, 20일 405만대, 추석 당일 21일 522만대, 22일 470만대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부산 구간은 귀성의 경우 승용차 기준 5시간30분, 귀경은 8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추석 귀성(6시간10분), 귀경(6시간5분)에 비해 귀성은 40분 줄어 들고, 귀경은 2시간35분 늘어났다.

서울~광주 구간은 귀성이 3시간50분, 귀경이 8시간이 소요되고, 서울~강릉 구간은 귀성이 3시간, 귀경은 5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코로나19 방역 강화

국토부는 추석 연휴기간 이동에 대비해 귀성, 귀경길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속도로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용객이 물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추석에도 지난 명절과 같이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추석 연휴 전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DB손보 교통사고 예방 차량 점검 삼성화재 20여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

DB손해보험이 추석을 맞아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삼성화재도 연간 상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DB손보는 오늘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다. DB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전국 프로미카월드 313개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미카월드 위치는 DB손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미가입 고객에게는 12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가입 고객의 경우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 25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



DB손해보험이 추석연휴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DB손해보험

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 시 상시 마스크 착용, 고객용 손 소독제 추가 비치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고객들에게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삼성화재의 경우 추석 맞이 이벤트 성이 아닌 연간 상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전국 479곳에 위치한 애니카렌드를 통해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공기압 ▲

에어컨 등 20여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가 가능하다.

손보사의 경우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추세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동 자제를 권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시중은행, 탄력점포 운영... 불편함 최소화

작년 이어 이동식 은행점포 줄어 외국인 밀집지역서 탄력점포 운영

명절 연휴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이동식 은행점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8일부터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이동식 점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이동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곳은 농협·광주은행 등 2개 은행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 자동화기기(ATM)와 신권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권이 필요할 경우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성남유통센터(농협은행)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광주은행)에서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은행들은 주요 공항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들



지난 2019년 설 명절에 우리은행이 운영한 이동식점포 모습. /우리은행

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은 김포, 인천, 청주 등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주요 공항으로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신한·우리·하나은행이, 김포공항과 청주은행에서 신한은행이 환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우리은행은 경기도 안산·김포·의정부,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외국인 금융센터를 통해 외국인대상 환전 및 송금 업무를 진행한다. 하나은행도 경기도 안산에서 원국동의국인센터, 원국동의환센터 출장소를 통해 계좌개설, 송금, 환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영석 기자 ysl@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바일스, 女체조대표팀 의사 선수 성적 확대 눈물의 증언
▲ 류현진, 내일 미네소타전 선발 예정...시즌 14승 재도전 /사진 뉴시스

▲ '부상' 손흥민, 스트드 렌 원정경기 제외...20일 첼시전도 불투명
▲ 양현종, 시즌 두 번째 방출대기...MLB 협로



▲ 윤여정,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사진 뉴시스
▲ 태풍 '찬투', 오늘 오후까지 영향...연휴 첫날은 맑음